

일제 강점기 만주의 농업 기술을 통해 본 민족 문제 시론(試論)* - 안수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주현** · 권혁건***

차 례

- | | |
|---------------------|-------------------|
| I. 들어가며 | IV. 협화의 기술과 학생 되기 |
| II. ‘만보산사건’ 다시 보기 | V. 나오며 |
| III. 문명의 기술과 스승의 자리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재 이분법적으로 대립중인 만주 개척 서사 연구의 방법론을 확장시키면서 일제 강점기 만주의 민족 문제를 제국과 자본의 관계 속에서 규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점기 한국 문학사에서 만주라는 문제적 공간을 농업 기술, 구체적으로 조선인 디아스포라 집단이 성공시킨 수전(水田)에 착안하여 민족 문제 차원에서 접근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됨(KRF-2008-323-A00011)

** 인제대학교 기초대학 전임강사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교신저자)

했다. 만주는 한국 문학사의 탈식민주의 논의에서 중요한 공간이다. 만주에 대한 근대 초기 지식인들의 관심은 만주 사변 후 급속하게 증가했고, 근대 문인들에게도 만주는 현실적으로 좌절된 민족적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대동아공영권이라는 제국주의적 착란을 가능하게 하는 혼종적인 공간이었다. 그 결과 최근 국문학 연구에서 만주를 다룬 근대 작가들은 저항/협력이라는 이분법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러나 근대 작가들의 만주 형상화의 원천인 ‘만보산사건’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만보산사건은 일제 강점기 만주의 조선인 디아스포라 집단의 ‘민족적 수난’과 ‘극복’을 의미하는 대명사였지만, 중국인 지주와 일제가 공모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중국인 소작농을 생각할 때 오늘날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민족보다는 오히려 자본과 계급 문제이다. 만보산사건을 소재로 한 근대 문인들의 텍스트를 탈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주에서 수전은 ‘조선인다움’의 지표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친화적인 기술이 된다. 이에 대한 민족 내부자의 시선은 수전이 가져온 근대적 영농 시스템을 일제의 괴뢰국 만주국의 농업 정책에 따라 시기별로 다르게 인식하는 안수길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벼>와 <목축기>, <북향보>는 만주의 농업 ‘스승’에서 ‘학생’으로 지위가 변화하는 조선인 농민들을 등장시켜 이 과정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또한 ‘수전’에서 ‘목축’으로 만주국 농업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민족 중심 서사로부터 협화(協和)의 서사로 소설의 구성이 변화하는 것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주제어 : 수전(水田), 만보산사건, 안수길, <벼>, <목축기>, <북향보>, 민족주의, 탈식민주의, 오족협화론

I. 들어가며

한국 문학사에서 만주의 문제성은 만주국 성립 후 만주를 대하는 작가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1800년대 후반 월경이 시작된 후에도 황무지였던 만주가 만주 사변을 계기로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면서 만주는 대동아경영권, 동아협동체론이 구현되는 공간으로 주목받게 된다. 그러나 문학사에서는 논외였던 조선의 이주민들이 개척의 터를 놓은 선구자로 사회적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은 ‘이주민’에서 ‘개척민’으로 그들의 호칭이 바뀌고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면서이다. 이 와중에 만주 드림은 만주사변 후 만주개척을 국책으로 삼은 일제의 대규모 이주정책에 힘입어 왕도낙도와 같은 언어로 표상되어 조선 농민에게는 자작농의 꿈을, 자본가들에게는 대규모 농장경영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게 된다.¹⁾ 실제로 만주를 형상화한 일제 말기 문학 작품에서 ‘거름도 필요 없는 비옥한 검은 흙’이 펼쳐지는 잠재적 농지에 대한 당대인들의 환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물론 그 환상은 쓰라린 수난을 대가로 치르고 만주국 성립 후 비로소 ‘실현된 것’처럼 강요된 후에도 극동의 정치 질서에 명운이 좌우되는 형태였지만, 만주는 ‘여기는 만주다’는 당대인들의 발언이 일러주듯 어쩌면 그렇기에 더 단일한 키워드로 해명되거나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만주사변 후 창작된 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만주는 실로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근래 근대 문학 속 만주 관련 연구 성과들은 민족, 제

1) 공진향, 『이상향을 찾아서』, 탁암공진향 회수기념문집간행위원회, 1970 참고.

이 잠재적 영농낙도에 대한 환상은 조선 후기 월경 농사시기 때부터 소문의 형태로 유통되었다. 실제로 일부 월경 농민들은 벼이삭만큼씩 자란 조, 수수, 콩 등과 씨앗만 뿌려둔 감자를 수확하며 강 너머에 실재하는 고도 생산성의 유토피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험령한 국경선과 백두산정계비로 대표되는 영토 논쟁은 국경 접경 지역 농민들의 욕망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더욱 만주를 조선 농민들의 잠재적 농토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안수길의 <북간도>에는 초창기 이주민의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국, 탈식민성을 상호 교차시키며 만주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논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만주국 성립 후 이른바 ‘개척문학’으로 분류되는 작품들이 협력과 저항의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²⁾ 이 글은 일제 말기 만주 관련 문학 연구의 탈식민주의적 독법에 상당 부분 기대지만 특정 작품의 협력/저항 여부를 가르기보다는 정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디아스포라를 이룬 재만 조선인과 그들을 다룬 문학 작품이 협력과 저항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주 개척 담론과 민족 문제 차원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일제 파시즘이라는 최종 심급 안에서 만주의 조, 중, 일 자본이 민족을 내세워 계급 문제를 은폐하고 거꾸로 조선과 중국의 소작농을 억지로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민족 갈등을 가렸던 현상과, 조선인이 주인 공인 개척 소설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도 좀처럼 식민주의의 담론 효과를 벗어나기 어려운 까닭을 농업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조선인의 위상과 관련해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특정 문인의 작품이 민족적이나 반민족적이나를 따지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개척의 증거로 보았던 이주 부락민의 땅이 현시하는 개척 이데올로기의 (자본 친화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작품이 협력적으로도, 저항적으로도 보인다면 작가의 고백을 들을 수 없는 다음에야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만주국의 정책을 작품에 반영하면서도 민족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은 안수길의 작품과, 그 작품이 보여주는 만주 개척 담론의 구조에 집중하는 것은 이 글의 문제의식을 해명하는 데 유용하다. 보기에 따라서는 문학 작품을

2) 대표적으로 이태준의 <농군>을 둘러싼 해석을 들 수 있다. <농군>을 국책 소설로 읽은 김철의 「몰락하는 신생-‘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을 장영우(「「농군」과 「만보산사건」」), 이상경(「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 등이 반박하며 「농군」을 민족 문학 작품으로 읽고 있다. 장영우, 이상경의 논문은 김재용 편, 『만보산사건과 한국 근대문학』, 역락, 2010 참고.

기계적으로 특정 논리에 끼워 맞추어 위험이 없지 않으나 이 시기 문학 작품이 놓인 특수한 위치와, 삶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문학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로써 기존 연구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연구 영역도 확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만주 농업의 비약적 진보로 받아들여졌던 수전과 만주국의 농업 정책에 주목한다. 즉 농사를 자연이 주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기술 이성이 개입하는 인위적 영역으로 이해해 체계적 관리와 경영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근대적 영농 시스템이 곳곳에서 정착되어갔던 땅으로 만주를 이해하고자 한다. 1931년 만주 사변 이후 만주에 들어온 농업 이민단은 자작농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오래된 관행 농법을 깨고 대규모 농장 중심으로 관과 민이 협력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도입해 상호 경쟁적인 전문적 농업 기술을 시험하게 된다. 실제로 만주국이 내세운 영농낙토론이 일본이 전시체제에 돌입한 후 안정적인 군량미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던 것은 식민지 조선의 식량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어 새로운 식량 공급지를 마련해야했던 사정과 대단히 밀접하다. 그 결과 만주 개척은 시종 '국책'으로 조선과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거름도 필요 없는 비옥한 검은 흙에 대한 환상을 식민지와 본토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보증한 주체가 제국주의 일본 당국이었다는 점은 '만주 드림'의 허구성을 점령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다민족 국가의 외피를 입은 만주국의 소외된 주체들을 좌우했던 권력은 일제 파시즘과 결탁한 자본이었다. '개척민'은 양자가 공모하여 만들어낸 신조어로 특히 만주로 온 조선과 일본 농민들에게 강력한 이데올로기 효과를 발휘하는 담론이었다. 무엇보다 개척은 입식과 더불어 '고향의 이식'이라는 착란을 가능케 했다.

II. ‘만보산사건’ 다시 보기

만주의 수전 개간은 동북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받았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일본을 경계하기 위해 간도 지역 이민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인의 귀화를 장려했지만 중국북방지역은 전통적 한전(旱田)농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만선철도가 놓이고 1918~19년 조선남부지역에 흉년이 들면서 수전에 능한 조선인들이 대거 만주로 진출하게 된다.³⁾ 만주 지역 벼농사의 출발점을 조선 후기 국경지역 조선인들이 혼강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 통화 일대에서 벼농사 시작에 성공한 후 남만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었던 1875년 무렵을 개시 시점으로 잡기도⁴⁾ 하나 이는 문헌상 기록이고 〈북간도〉와 같은 작품을 참고하면 이주 초기의 월경민들은 잡곡과 구황식물을 주로 심었다고 볼 수 있다. 조용히 나타나 임자 없는 땅을 골라 감자 씨앗을 심고 돌아가는 모습은 옷차림만이 다를 뿐 청인들과 갈등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다. 즉 이 시기 조선인들이 월경하여 물이 가까운 황무지에 익숙한 농업을 시도했던 수전은 원주민들과 별반 마찰을 빚는 기술은 아니었다. 중국인들의 인가에서 먼 곳에 황무지를 개간했으며 조선 후기부터 이미 수전 중심이었던 조선 농민의 벼농사 기술을 북쪽 오지에서 시험해보는 시행착오의 시기였다. 그러나 만주처럼 기후 조건이 변덕스러운 곳에서 조선 농민들 대부분이 벼농사에만 종사한 것은 수재, 한재가 들었을 때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한 모험이기도 했다는 지적을⁵⁾ 참고하면 조선인의 농업 기술로 실현된 만주의 농업 수전 개간이 한편으로는 현지의 기후 조건에 맞지 않는 도박이기도 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만주사변 이후 문인들이 수전을 매개로 만주 개척 민족 수난

3) 김영, 『근대 만주 벼농사 발달과 이주 조선인』, 국학자료원, 2004, 34쪽.

4) 위의 책, 34-39쪽.

5) 위의 책, 41쪽.

사를 작품화한 까닭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전이 ‘조선인다움’의 선명한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벼는 조선에서 가장 주요한 작물이었고, 고향 산천의 풍경을 환기하는 특별한 식물이기도 했다. 만주벌에 자라는 벼를 보고 고향을 느끼는 것은 이주민이나 방문자나 다를 바 없었고, 특히 개척 시찰단에 끼어 만주를 밟은 문인들에게 수전은 망국의 아픔을 딛고 당당하게 만주국의 국민이 된 조선 농민들이 주도한 민족적 기술의 승리라는 강력한 인상을 주었다.⁶⁾ 그 계기는 널리 알려진 대로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이다.

1931년 7월, 만주 사변 직전에 발생한 만보산사건은 중국과 식민지 조선·일본 언론이 나서 만보산 근처 두 민족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는 중국동북지역 길림성 장춘현 만보산 인근의 이주 조선농민이 수전에 필요한 수로를 파다가 중국인과 충돌을 일으켜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출동한 청, 일 관헌이 무력 충돌하였으나 큰 인명피해 없이 끝난 것이다. 그런데 이후 사건이 고의적으로 왜곡되고 과장된 언론 보도를 타면서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살해당하는 비극이 일어난다. 이는 중국 쪽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어 결국 만보산은 두 민족이 공식적으로 충돌한 현장이 되었다. 일제는 양국의 민족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 지역을 저명인사들의 만주 시찰 코스로 넣었지만 만보산 부락을 다녀온 문인들의 시각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시찰단에 끼어 만보산을 다녀온 작가들은 수전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들이 본 것은 조선 민족이었을까? 확장된 제국이었을까? 이에 대해서

6) 일제의 농업 기술 정책에 따라 수전의 의미를 달리 보는 이 글의 시각과는 다소 다르지만 일제 강점기 만주의 수전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재만 조선인의 위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는 입장은 윤영옥과 차성연, 와타나베 나오키 등에 게서도 확인된다. 윤영옥, 「한국 근대 농민의 문학적 재현과 수리복합체」, 『한국언어문학』 69, 한국언어문학회, 2009; 차성연, 「만주 이주민 소설의 주권 지향성 연구」,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와타나베 나오키(渡辺直紀),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과 ‘만주」, 『한국문학연구』 3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참고.

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제에 협조적이었던 문인들은 물론이고 비교적 비타협적이었던 카프 맹원들에게도 수전이 황무지 개척에 성공한 조선 민족의 선진 농업 기술이었다는 점이다. 1930년대 후반에 만주를 다녀온 문인들의 글을 보자.

(1) 나는 동북남만에서 도처에 수전을 발견할 때마다 기이한 감이 없지 않았다. 광막한 만주 벌판에다, 석일의 황지를 변하여 문전옥토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더욱 만인의 안목으로 볼 때는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물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그들은 조농이 침입하여 수전을 개척함을 보고, 동리가 금방 물로 망할 것을 겁내어서, 가진 박해와 참극을 일으킨 실례가 불소하다 하지 않았던가.

과연 만주 사변 전까지의 만주 황야에 개척된 수전은, 백년간 이주 동포의 열투전사를 그려온 비장한 기록이라 할 수 있겠다.

사정은 일변하여 이제는 그들도 낙토를 건설하려는 개척민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왕사를 회고하면 다시금 감구지회가 없지 않다 하겠다. (...) 그러나 또한 만주의 수전 개발은 원시적 자연을 변개하는 위대한 창조성을 띠고 있다. 같은 농촌이면서도 그것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만주농촌의 특별한 성격으로 되어 있다. 즉 황폐한 평원을 수전으로 개척하는 것은 본래의 건조한 밭농사만 짓던 만주로 하여금, 수전수림과 제방천택(堤防川澤)이 구유한 포실한 농촌을 건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만 경제적 부원을 개발함에 그칠 뿐 아니라 실로 전원의 풍광을 일변하는 자연미를 가져오게도 한다.⁷⁾

(2) 만주에 가서 개척민들의 영농상태를 보아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거니와 가령 만보산(萬寶山)산이나 영흥농촌(榮興農村)같이 장학량 시대의 갖은 압박과 만주사변 당시에 패잔병의 피해를 이기고 나온 그들이야말로 백절불굴하는 정신의 양성이 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변 뒤 오늘까지 10년 동안을 싸우고 나온 끝에 만보산(萬寶山) 부락 사람들은 작년에 30만원이란 거금을 얻어내어서

7) 이기영, 「만주와 농민문학」, 민족문학연구소, 『일제 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2007, 94-95쪽(원문은 『인문평론』, 1939.11.)

자작농창정을 이루었다. 또 영흥농촌 사람들은 그 벼 알 하나 자라지 못하는 ‘알칼리성’ 토지를 오늘엔 비전옥토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야말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놓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백전불굴하는 의지와 현실적인 연구심이 무(無)에서 유(有)를 낳은 것이다.⁸⁾

(3) 더구나 수전 개발은 조선 농민이 한 것이니까요. 지금 만주국내에서 4백만석 이나 미(米)가 생산되는데 이것이 모두 조선인의 수전 개발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임을 알 때 이것은 놀랄 일입니다. 1포 16원을 치고 4백만석이면 6천 2백만 원의 거액이니 이야말로 상당한 액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인은 수전사업과 정미업을 많이 하는데 과거 조선농민은 조직적으로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지주인 만인이 개발한 토지를 회수하는 일이 많아 다소 문제되는 것도 있다 합니다.⁹⁾

(1), (2), (3)은 조선 민족의 개척 정신과 함께 수전의 높은 경제성을 지적하고 있다. (1)에서 이기영은 개발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수전을 “자연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창조성”으로 평한다. 이러한 논리의 뒤에는 그가 수전 개척을 자신의 주력 분야인 농민 문화 건설을 위한 활로로 파악하고 있다는 문학가다운 의식이 깔려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카프 맹원이었던 그의 위치를 생각하면 그가 전체적으로 시종 명랑한 어조로 수전을 고평하고 수전의 피해를 입은 중국 농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물을 무서워하여 놀랐다’는 식으로 간평하고 마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수전을 개간하며 흘린 조선 농민의 고단한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시기에 쓴 「만주견문」을 통해 만주로 이주한 조선 농민 가운데 “부황한 나농(懶農)”의 게으름과 부동성(浮動性)을 질책하는 태도는 일본에서 프로 문학 작가로 데뷔하여 만주사변 후 전향한 장혁주가 (2)에서 만보산 부락, 영흥농촌

8) 장혁주, 「개척정신」, 위의 책, 160쪽.(원문은 『半島の光』, 1942.8.)

9) 함대훈, 「남북만주편답기」, 위의 책, 174.(원문은 『조광』, 1939.7.) 인용 부분은 당시 만주국 건국대학 교수였던 육당 최남선이 함대훈에게 한 말이다.

의 성취를 칭찬한 다음 이와 대비하여 다른 개척촌의 조선 농민은 “의지”와 “연구심”, “부락의 노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하는 태도와 유사하다.

한때 계급 문학을 외치며 반자본의 편에 섰던 이들이 이 무렵 연일 신문을 도배했던 만보산사건의 실상¹⁰⁾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수전 기술의 유무에 따라 양국 농민을 열등하고 우수한 존재로 파악하는 이러한 인식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나아가 자연을 변개(變改)하는 위대한 농업 기술이라는 언술이 다시 그 기술을 보유한 민족 집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게으른 일부 농민들에 대한 계도적 언설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개척 담론의 속성을 이해하려면 만보산사건의 전말을 적대적인 두 민족 집단의 농민이 아니라 일제와 결탁한 중국인 지주의 부도덕성을 가리는 방패가 된 조선 농민과 중국인 영세농의 충돌로 볼 필요가 있다.

만보산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선인을 이용해 편법으로 수전을 개척하려한 중국인 학영덕이 눈에 띈다. 박영석에 따르면 그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결탁해 장춘도전공사(長春稻田公司)를 세운 다음 소한림(蕭翰林) 등 중국인들과 10년 계약을 체결했으나 다시 수전을 위해 조선인 9인과 이중계약을 체결한다. 그러자 수로가 지나는 중국 농민들의 땅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수로 공사가 지연되자 조선인 보호를 자처한 일본 영사관과 중국 농민들의 탄원을 받은 장춘의 공공기관이 공동조사 끝에 상이한 결론을 내린다.¹¹⁾ 그런데 사건이 확대되면서 원인 제공자 학영덕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조선인과 중국인의 민족 문제로 호도된 것이다.

따져보면 중국 측 결론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의 법적 문제와

10) 보도가 나간 후 조선과 중국에서 예기치 않은 민족 갈등이 발생하자 『동아일보』는 민족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연일 대대적인 사설을 내보내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냉정해질 것을 당부한다.

11) 박영석, 『만보산사건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8 참고.

수전 때문에 피해를 입을 중국인의 농지에 대한 우려였던데 반해, 수로 공사에 계약상 큰 하자는 없고, 장차 수전으로 농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므로 토착 중국인에게도 이롭다는 일본 측 주장은 다분히 억지스럽다. 어쨌든 애초 계약에 문제가 있었고 벼농사를 짓지 않는 중국 농민들의 주변 농지가 입을 피해 또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은 원주민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오랫동안 그곳을 지키며 공동체를 형성해온 원주민의 터전을 상업적 개발 공간으로 바라보는 자본가의 시각이다. 그러니 중국 측에 맞서 일본은 무주공산 만주에서 통용된 힘과 자본에 기대 표면적으로 조선인 보호를 내세워 조선인과 중국인들의 충돌을 유도하는 식으로 동북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키운 셈이다. 이 글도 그렇거니와 대부분의 만보산사건 연구물들은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각만으로는 수전이 얹혀 있었던 만주 개척 담론의 구조를 공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조선과 일본이 하필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은 ‘우연’이었지만, 당시 만주에서 이 우연은 조선·일본·중국 농민이라는 대립 축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¹²⁾ 특히 일본인 개척단이 조선인에게서 수전 기술을 배우고 관리를 맡기는 등 수전이 매개된 관계가 만들어지자 수전은 더욱 단순한 식습관일 수 없었다. 수전은 밭농사와 잡곡 위주로 살아온 동북 지역 중국인에 대해, 아이러니하지만, ‘같은 일본인’인 조선인의 우월한 농업 기술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자, 만주 수탈의 첨병이었던 관동군이 요구했던 식량, 또 미

12)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복잡한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조선족의 경우에는 두 유형의 관계가 있다. 하나는 통역자로서 조선족인데, 통역자 역할을 조월해 일본인을 대신해 한족과 ‘교섭’을 이끌어주고 마찰을 극복했던 타입이다. 이 조선족들은 ‘만주국’ 정부가 취했던 일본, 조선, 중국의 관계를 체현하고 있다. 또 하나는 조선족 농민이다. 이들은 ‘일본어를 했고, 수전의 선생으로서 다양한 가르침을 주었던 대상이다.’ 이들은 (일본인 농장에) 초대되어 조선 요리를 지도하였다. 坂下明彦, 「滿州農業移民の營農實態と漢族・朝鮮族」, 『日本の科學者』 30, 1995.10, 532쪽.

곡 투기를 일으켰던 1930년대 자본의 근대성에 적극 부합했던 문제적 기술이었다.

일제 말기에 문인들이 이러한 문제성을 제대로 보고 드러내기 쉽지 않았을 터이나 수전이 만주 개척에 헌신했던 조선인의 민족적 개척담으로만 형상화되면서 주로 소작농이었던 중국 농민들이 부당하게 폄하되고, 중국인 지주와 일본 대영농가들이 조선, 중국인 소작인들과 맺은 가혹한 노동 계약 같은 계급적 문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¹³⁾ 이러한 현상은 만주국이 안정기에 들어서고 1930년대 후반 만주 개척이 일제의 국책으로 추진되던 와중에 문인들이 시찰단에 끼어 만주를 다녀오면서, 이미 완성된 수전이 선사하는 강력한 시각적 효과에 마취된 상태에서 초창기 수전 개발의 신고를 현지에서 들었다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에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했던 당시의 정세는, 이상경의 지적처럼 “작가가 말하고 싶었으나 검열에 의해 ‘말하지 못한 것’의 흔적”¹⁴⁾을 통찰하면서 오죽협화론 같은 만주국의 이념에 내적으로 어느 정도 동화되었나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인들이 의욕적으로 그려낸 수전 개척담에는 민족과 계급 문제가 일제의 논리에 착종되어 있고, 그 시선은 조선 농민이 문명화된 선진 기술의 전파자들인 점에 집중된다.

13) 1936년 만주개발이 국책으로 선정된 후 대규모로 이루어진 일본인 농업 이민은 만주에서 동북 농촌 지역에 새로운 지주·소작 관계와 고용 관계를 만들어낸다. 대규모 영농 단지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이민단에는 거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소작인으로 고용되어, 종래 계급모순에 민족적 모순이 더해졌다. 오카베 마키오,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최혜주 역, 어문학사, 2009, 237쪽.

14) 이상경,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 김재용 편, 앞의 책, 102쪽.

III. 문명의 기술과 스승의 자리

만주에서 수전이 대대적으로 성공한 후 조선 농민의 삶의 질은 고향에서보다 낮게 그려진다. 최소한 굶지 않게 된 <농군>의 창권 일가를 보아도 그렇고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에서 만주는 수전을 일군 조선인들에 의해 다분히 조선화된 이상촌으로 그려져 있다.

조선 농민의 수전 기술이 특수하고 문명화된 기술로 바뀌는 것은 조선사회에 만주 이민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만주드림=벼=부의 축적으로 인식되는 1930년대 이후부터이다.¹⁵⁾ 만보산사건에서 수전의 가치를 알아챈 학영덕은 수전의 의미가 변화하는 30년대 분위기를 중국인 지주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법적 하자를 무릅쓰고 조선인에게 수전 개간권을 준 것은 상업적 타산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당시 만주에서 수전이 자본의 침식력이 대단히 높은 농업 기술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별히 대규모 ‘입식’은 이주 초기 소수의 조선인들과 중국 농민들이 각자 고유한 농법으로 공존하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대사건이었다. 기경지를 빼앗기고 농지가 대규모로 점령당하자 동북에서 중국 농민의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¹⁶⁾, 1930년대 후반 조선과 일본에서 온 이민 부락단들은 이전과는 달리 대 부락을 형성하여 만주의 새주인을 자처하며 원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는다. 만보산사건은 이러한 갈등이 오래되었음을 뜻하는데, 여러 논자가 지적했듯 만보산사건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30년대 후반이라 그 사이 변화한 정세를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주를 ‘대동아 공영’이 구현된 곳으로 인식¹⁷⁾한 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농군>과 같은 작품도 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친일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5)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2007, 181쪽.

16) 오카베 마키오, 앞의 책, 233쪽.

17) 대표적으로 만보산사건을 소재로 한 이토 에이노스케(伊藤氷之介)의 <만보산> (1931), 장혁주의 <개척>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에서 더 유의해야 할 것은 판단조차 쉽지 않은 민족주의적 관점의 견지 유무가 아니라 수전이 가리고 있는 다른 문제들-예컨대 계급 문제 등이다.¹⁸⁾ 수전이 상업성이 있는 진보적 기술일 때 그 곁에는 열등한 관행 농법이 있고, 이 열등한 농법은 또한 지주가 아니라 원주민 소작농과 일체가 된다. 1940년에 발표된 안수길의 <벼>에서는 학영덕 같은 중국인 지주 방치원을 등장시켜 수전의 의미를 상업적 가치가 있는 농업 기술로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방치원은 일행을 끄찌기 환영하였다. 그는 산둥(山東)태생이였으며 젊어서 조선에 건너가 인천근방에서 적은포목전을 경영한일이있었다. 대체로 조선안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조선말도 의사소통할정도는 되였거니와 그자신이 신세진 조선사람의게 대하여 기쁜리해를 가져섰다.

수전개간을 그러케 후한조건으로 승락한것도 그가 조선잇을때 입쌀밥에 맡드린관계도 잇거니와 그것이 만주에서도 한전(旱田)보다 이윤이 훨씬 만타는 것을 안가답이다. 그보다도 그는얼마전부터 이용가치가 충분히있으면서 그대로 팽개쳐있는 수십만평의 황무지를 수전으로 개간할 생각을가졌으나 이곳 원주민은 그런기술이없어 그가조선잇을때 친하던 사람에게 그런뜻을 편지하였다.¹⁹⁾

방치원이 수전에 호의적인 까닭은 조선에서 상인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조선 사람에 신세를 졌다거나 깊은 이해가 있다는 설정은 개연성을 높이는 사소한 장치일 뿐, 본질은 그가 만주의 농민이 아

18) 이현정도 유사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이현정은 “중국인의 정당한 권리와 입장”에 대한 <농군>의 무관심을 지적하면서 <농군>의 현지 중국인 처리 방식이 일본이 홋카이도, 대만, 오키나와를 식민지화하면서 가진 수탈자의 멘탈리티와 유사하다고 본다. 그러나 농군의 조선 농민들이 수탈자가 아닌 것은 그들에게 만주를 식민지화할 정치적 군사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현정, 『잃어버린 민족을 만주에서 상상하다』, 김재용 편, 앞의 책, 94쪽.

19) 안수길, <벼>, 연변대학교조선문학연구소, 『안수길』, 보고서, 2005, 272쪽.

나라는 점이다. 황무지를 수전으로 바꿨을 때 이윤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상인 출신 지주라는 점에서 방치원은, 만보산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중국인지주의 입장에서 진보한 농업기술인 수전의 가치를 설파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공평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수전이 방치원 같은 지주를 비롯해 중농들에게는 이롭겠지만 당장 수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중국인 소작농들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이다. 만보산사건에서도 그랬지만 핵심은 수로 옆의 밭을 못쓰게 된 중국인 농민들의 ‘구체적’인 불만과 항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은 (중국인들이 보기에) 검증되지 않은 예측과 계산을 일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니, 이는 개인의 절박한 요구를 지주의 상업적 계산으로 덮는 불공정한 처사였다. 실제로 방치원은 개간한 황무지를 3년간 무상대여하고 그 안에 조선에서 불려온 수전기술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후의를 베풀지만 개간된 황무지를 팔지는 않는다. 방치원에게 수전을 제안한 홍덕호 역시 “삼년동안에 잘하면 미천한 푼 안드리고 수천원 모아가지고 나갈수있을것이라 기뻐하며” 이를 승낙한다. 수전의 환금성에 주목한 양국 사람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방치원의 계획은 일부분 청 정부의 이주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이주 초창기에 “인구가 희박하고 개간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만주에서 더욱 수전의개간은 지원의 발굴로서 국력의증강을 의미하는 것”(273쪽)이기도 했다는 설명은 청 당국의 이주 정책이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중국 농민들의 입장은 어떤가? <벼>에서 중국 농민들을 그리는 서술자의 시각은 앞에서 살펴본 다른 작가들과 거의 흡사하다.

그러나 원주민인 이곳 농민들은 박아지를 보통이에매여달고 거지떼 같이 몰려오는백성들에게 적지않은 적개심을 느끼고 그들을모멸하였다.

그것은 원주민으로말미암아 그들의 기경지(既耕地)가 침해당할까 저어함이였다.

그들은 그들이 이미개간한땅-그것을 지킴으로써 만족히역였고 달리 개척한다거나 황무지같은것을 이용할생각은 하지않았다. 수전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도아닌생각이겠거니와 그들은 습지며 낮은곳은 한전에 적당타아니하여 그대로 팽개치고 돌보지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사람들이고 이용할수없는것인줄만여겼다. 그럼으로 이주민들은 때를지어들이와서 결국은 그들이이미 갈아놓은 땅에서 농사를짓지않으면 안될것이고 그렇게되면 그들의 생활은 근처로부터 위협을 당한다는것이였다.

방치원의 호의와는 정반대인 원주민들의 이러한 냉정한 태도는 일행이 이곳에처음도착되든때부터 느낄수있었다.(273쪽)

이 글에서 원주민들의 특징은 무지와 안일로 요약된다. 무지해서 황무지 개척을 기경지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기경지와 황무지가 인접해 있어서 위협을 느낀다면 충분히 그럴 법하다. 더욱이 조선 농민들에게 줄 가장 큰집을 내놓으라는 것은 조선인들 편에 선 지주의 횡포나 다름없다. 결국 집을 내어준 이들은 지주 방치원에 대한 불만을 야밤에 조선인들을 습격하는 것으로 표출하고, 이에 방치원은 다시 이들을 설득하면서 이주 조선인들을 “순수하고 죄없는 백성”, “그집을 위하여 복을 갖어오는” 지친 “나그네”로 표현한다. 이러한 언설은 이주 조선인 농민들을 박해 받는 동질 집단으로 호명하면서²⁰⁾ 상대적으로 원주민을 이토록 온순한 자들을 박해하는 가해자로 형상화하게 된다.

<벼>의 시간대는 만주국 건국 2년 전이다. 안수길은 앞머리에 이를 밝혀 이러한 갈등이 현재(1941년)에는 없음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작품의 성격을 실증에 기초한 민족 수난의 서사로 의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중국인 농민과 조선인 농민의 마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벼>가 방치원을 그리는 방식은 여전히 문제적이다. 그는 수전의 경제

20) 1942년 10월 『조광』에 발표된 만주 개척민 부락장 좌담회 참석자 金澤의 발언을 참고하면 현실은 다소 달랐던 듯하다.

金澤: 만주로 올때엔 여기 와서 농사지어 국토를 개척할 뜻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사람이 개척민 측에 많이 섞여 있거든요. 열이면 두셋은 그런 사람이 끼어 있기 때문에 달아날 수밖에 있습니다. 조선서 농사 안하던 사람이 여기와 농사 지을리 만무지요. (정인택, 「개척민 부락장 현지 좌담회」, 민족문학연구소, 앞의 책, 53-54쪽.)

성을 구실로 중국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하며 그들을 어르고 달래 조선인이 개간한 수전에서 이익을 얻다가 장개석 군벌이 들어서 상황이 돌변하자 조선인에게 등을 돌린다.

현장은 방치원에게 매봉둔이란곳에 조선농민을불러들이어 지금같이 큰부락을 이루게한 것은 오로지 방치원이때문이란 것을 말하고 그것은 곳 자기나라의 국토를 다른나라 사람한테 함부로 매매하는 것으로 나라를 파는사람과 다를것이 없다는 뜻을말하여 방치원이 변명할거를도 주지않고 뚫도라가서 주민들을 국외로 내부내든지 그것이 정안되면 현외(縣外)에 까지라도 내어몰라는 것을 명령하였다.

이것은 국책이니 이명령에 위반하고 주민에게 정을 베푼다가 우물쭈물하는경우는 방치원을 매국노로 범의재단에 매끼겠다는 추상같은 말로써 결론을 맺었다. -방치원은 이러한 이야기를하고 도리혀 조선사람들이 처음 이곳에 드러올때에 후의를베푼 것을 고맙게 여긴다면 이딱한경우에 동정하여 나한테 욕이 도라오지않도록해달라 호소하였다.(311쪽)

이렇게 방치원은 조선인과 관계를 끊게 되지만 대조적으로 일본인 곡물 중개상 나카모도는 조선인들의 신뢰를 받으며 끝까지 조선인의 편에 선다. 나카모도는 조선 학교가 폐쇄될 위기에서 일본 영사관에 도움을 청하러 간다. 그 사이 학교가 불타고 수전이 습격당해 흥분한 조선인들은 원주민 부락을 공격하나, 이어 텍스트는 이 충돌이 배일사상에 젖은 현당국의 간계라고 밝힘으로써 모든 잘못을 현당국의 음모로 돌린다. 사실상 방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며, 이로써 30년대 만주에서 수전의 친자본적 성격은 더 분명해진다.

물론 1930년대 만주에 눈을 돌린 자본의 국적은 다양했다. 그러나 <벼>가 이 문제를 너무도 간단하게 조선인에게 우호적인 중국인 지주 방치원을 세웠다가 갈등이 불거지자 그를 빼고 이후 다시 조선인에 적대적인 청국 관료-소현장의 농간에 놀아나 한, 중 농민이 반목하고 일본

인 나까모도가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설정만큼이나 영세 소작농으로 불가피하게 대립했던 한, 중 농민의 개별적 특성과 역사를 그들이 속한 민족, 국가 단위의 거대 서사로만 통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실제로 조선인의 입장에서 배신자라고도 해도 될 방치원은 그래도 진실한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 중국 농민들의 내면은 거의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작품에서 수전은 조선인 농민들, 중국인 지주, 일제의 지지를 받는 대신 중국인 소작농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기술이다.

한편 중국인 농민이 조선 농민과 우호적 관계가 되는 때는 시간이 흘러 민족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량한 자본이 다민족 구성원이 모인 농장을 위협하면서부터이다. <목축기>와 <북향보>에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 있다.

IV. 협화의 기술과 학생 되기

만주 개척의 화려한 성공담과 달리, 수전 기술 공급지 조선의 농촌 사정은 오래 전부터 참혹했다. 강경애, 조명희의 20년대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주민들의 참혹한 가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식량사정이 나빠지는 30년대 후반에 들면서 조선 농업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제국주의와 동양의 봉건제가 나쁜 방식으로 결합한 조선의 ‘동양농업’은 ‘동양적 무지’에 빠진 ‘아세아적 농민’을 양산하게²¹⁾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 생산의 근대화를 이룰 근대적 영농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21) 인정식, 「조선농민과 문학적 표현」, 『삼천리』, 1939.7 참조.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농촌 문제에 골몰했고 전향 후에도 동양농업론을 내세워 농촌의 과학적 근대화, 계획경제론에 입각한 농업재편성론을 주장한 인정식의 농업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장용경, 「일제 식민지기 인정식의 전향론-내선일체론을 통한 식민적 관계의 형성과 농업재편성론」, 『한국사론』 4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3 참조

주장은 전시체제가 확립된 후 내선일체론에 편승하여 빠르게 전파된다. 1940년대 일제가 주도한 농업재편성론을 몇 줄기로 요약하면 만주 분촌(分村)계획과 노동력 이동 등을 통해 적정 경영규모를 창설하자는 자작농창정론(自作農創定論), 경지개간과 농업기술 발달론, 소작관계의 조정 등을 통한 농업근대화론이 있지만 조선에서 대부분의 논의들은 ‘농민도’의 확립과 같은 추상적인 이념을 강조하는 데 불과했다.²²⁾ 물질 토대가 취약한 데다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얹혀있었기 때문이다.

농업국가인 만주국에서도 농민도와 같은 시책은 민족 문제에 얹혀 폭력으로 전화되기 일쑤였다. 현지 중국인들에 대한 일본인 이민단원의 폭력은 일본 당국에서도 문제가 될 정도였으니²³⁾ 영농낙토론이나 오족협화론이 가리고 있는 민족적 편견과 갈등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허나 앞에서도 살폈듯이 1940년대 문학 작품에서 이러한 갈등을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작가들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허구의 이데올로기에 맞서거나 혹은 ‘말하고 싶은 것’을 ‘신중하게 말하는’ 식을 택해야 했지만 정황을 포괄적으로 참작해야 하는 침묵보다는 명확한 발화가 훨씬 문제적일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일본인이거나 엄연히 민족적 자의식을 가진 조선인이 민족 협화론을 말할 때는 다른 민족(일본, 중국인)과 융화하면서도 조선인이 중심이 되는 서사를 구성하는 욕망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수전은 일본도 인정한 ‘조선인의 기술’이었으므로 <농군>에서처럼 굳이

22) 장용경, 위의 논문, 271쪽.

23) “개척민에 대한 일본 내지 현지에서의 교육은 국책이민으로서 기개를 주입시키기 위해 쓸데없이 스스로를 높이는 동시에 원주민 滿人民족을 멸시하는 관념으로 바뀌어 구타폭행이 심한 것은 살해에 이르고, 더구나 이것이 집단적이 되기 때문에 왕왕 만인에게 압박, 박해하는 감을 주는 자도 있다. 이것 때문에 개척민에 대하여 감정이 첨예한 만인 민중의 불안은 증대하여 반일적 감정으로 전화하는 예가 적지 않다.” 「해외지방인의 언동에서 보는 국민교육자료(海外地方人ノ言動ヨリ觀タリ國民教育資料(案))」 오카베 마키오, 앞의 책, 239쪽에서 재인용.

말하고 싶지 않은 존재인 일본과 일본인을 저 쪽에 밀어두거나 혹은 <대지의 아들>에서처럼 ‘조선화된 만주’를 그림으로써 최대한 일본을 배제했다고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은 사정이 다르다. 만주의 원주민인 중국인을 빼놓고 오족협화를 논할 수도 없거니와, 만주국 내에서 조선인이 주인공인 개척 서사에서 중국인은, 없어도 되는 일본인과 달리, 주연을 돋보이는 조연으로 꼭 필요했는데, 그것이 <벼>에서 거칠고 무지한 원주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목축기>(1942)에서 중국인은 여전히 무지하지만 위험하지 않다. 그는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단자(單子)이다.²⁴⁾ 이 작품이 목장의 양돈 전문가 중국인 로우승을 그리는 방식을 보자. “축산과(畜産科)의학업을 전문으로 연찬한” 엘리트 청년 찬호와 달리 로우승은 “철나서 부터 사오십년간 도야지만을 기르다” 생리가 ‘도야지화’하고 만 늙은 중국인이다.

도야지화한것은 몸뿐이 아닌듯하였다.

신경이 그랬고 감정이 또한 그랬다. 도야지말을 알아듣는듯했고, 도야지도 그의 말을 잘 들었다. 아무리 야생의재래종이라해도 그의손아귀에 들면 몇일못가 그가식히는 대로 되었다. 넓은초원에 방목(放牧)할때에도 껍소리한마디로서 당장 그 버릇을 고치게하였다. 엄했으나 또 인자도했다. 병난놈 있으면 따끈한 자기방에 안어다 재우며 간수하는것을 비롯하여 더욱이 먹이에 대하여는 어머니의애정이었다.(…)그럼으로 도야지도 그를 따르는듯했다. 그러나 세상일에는 어두운 그였다. 건국八주년인오늘에도 그는 역시 옛날세상인것만 여겼다. 도무지 그런 것을알려 들지않었다. 그의 경력부터가 모호하였다.<목축기>, 70쪽.)

세상일에 무관심하고 돼지밖에 모르는 로우승은 찬호를 비롯한 조선인 인부들에게 연민을 자아낸다. 무지하다는 점에서 로우승은 <벼>의

24) <목축기>는 수의면허를 가진 교원 찬호가 만주에 건설된 농촌에 들어가 목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기록한 작품인데, <북향보>의 전작으로도 읽힌다.

토착민들과 비슷하지만, 충도 없이 자신의 귀를 물어뜯은 범을 죽이려 홀로 농장을 떠날 정도로 문명의 냄새는 철저하게 제거되어 있다. 그와 농장 조선인의 관계 역시 집단: 집단이 아니라 (특수한)개인: (상식적인) 집단으로 바뀌어 있다. 요컨대 조선인이 중심인 이 농장에는 악명 높은 비적이나 수전을 한사코 방해하는 토착민들이 아니라 돼지를 사랑하는 한 미개한 중국인이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찬호는 조선에서 데려온 돼지를 보고 로우승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그에게 무슨 적선이나 베프는것같은 호뭇함”을 느낀다. 찬호에게 로우승은 양돈에 천부적 재능이 있는 중국인이지만 축산일을 의논할 상대는 못되는, 농장에 고용된 흥미로운 관찰 대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목축기>는 <벼>에서의 민족 대립을 개인적 역량과 기질의 차이로 바꾸어 측정한 중국인을 그리지만 <북향보>(1944)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 내부에서 아군과 적군을 가른 후 ‘만주국 신민’으로서 아군의 자리를 새롭게 모색한다. 단적으로 <북향보>에서는 오족협화가 실현되어 있다. 물론 농장은 만주국의 지원을 받아 조선인 주주들이 상당한 자본을 출자하여 “아름다운 농민 도장” 건설을 목표로 하는 조선인 중심 농장이다. 그러나 만주인 반성기는 농장이 모내기를 할 때 어울리며 유창한 조선말로 모내기 노래를 배우고, 이에 화답하듯 강서방은 만주 노래를 배우기로 한다. 또 친구의 유력한 지원자는 옛날 현공서 동료였던 일본인 사도미이다. 그런데 이 농장이 만주에 이상촌을 건설한다는 국책 이념을 위협하는 조선인 투기 자본가에 의해 붕괴될 위기에 처한다. 설상가상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주주들도 농장 매각에 동의하게 된다. 이 와중에 농장 건설에 헌신한 교육자 정학도가 작고하고, 대주주인 장사꾼 박병익은 농장을 담보로 투기성 광산개발에 뛰어들다. 허나 농업 지도자 친구와 기자인 친구 준영은 굳은 의지로 학도의 유지를 받들어 만주의 조선인 사회와 멀리 경성에까지 호소하여 돈을 모아 농장을 되살린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는 학도의 입을 빌어 민족애가 없는 조선인들을 “도혼(稻魂)”이 없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도혼이란 무엇인가? 도혼은 이주 초기에 만주에 들어와 갓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벼를 심으며 인고의 세월을 견딘 끝에 마침내 그 “덕의 씨”인 만주국 건국에 공헌한 조선인들의 순수하고 곧은 (민족적)의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도혼을 흐리는 이들이 뒤에 들어와 돈만 밝히는 조선인들이다.

그들은 건국전야 이땅에 동포가 살고있는지 팽이새끼가 있는지 관심가져줄 까닭이 잇섯갯는가만 건국이 된후 너도 나도 무력천지의 이 바닥에서 돈벌러 떠나는것과 꼭가튼 생각으로 우 몰려들어온것이니 그들이 예서하는 행동이란 조선사람의 체면을 염려하는 지각잇은것이엿을수가 잇겠나. 한다는 노릇이 몰의리요, 거짓말이요 사기횡령이요, 부정업이요, 또 당지안은 자존심에다가 쓸데업는 권리주장이요, 심한데 이르러는 만인을 경멸하는 언동이요, 헛스나 조선사람이 신용이 일게나 만계에서 두터울 리가 잇겠나.(…) 더욱이 논란되는 것은 이런분자들이 이곳에 몸둘 곳이 업다던가 제게 이롭지 못하면 만주를 실컷 욱하고 돌아가던가 새땅 북지(北支)나 남지에 가면 그만이지만 하늘이 무너진대도 갈곳이 업은 농민의 얼굴에 한번 묻혀노는 흙은 좀 체로 벗어질 길이 업다는점일세... 그러나조선 농민은 이곳에 덕의 씨를 심엇고 심고잇은 사람들일세. 농민도는 또한 음덕(陰德)의 씨를 어떻게 뿌리자는 정신이기도 하네. 양보(陽報)가 잇슬 날을 회신하면서..... (<북향보>, 525-526쪽.)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전=덕의 씨앗=만주국 건국이라는 시국영합적인 발언이 아니다. 도혼은 만주 농업의 스승이었던 조선인이 세운 농장이라는 민족적 기원을 조선 민족을 직접 호명하지 않으면서 아슬아슬하게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따름이요, 정작 문제는 도혼이 ‘새로운 음덕의 씨’로 확장되면서 수전 대신 목축이 강조되는 맥락이다. 이미 수전이 광범위하게 보급된²⁵⁾ 까닭도 있었고 이 시기는 만주국의 농업 정책 변화에 따라 다양한 농업이 논의되던 특수한 시기였던 것이다. 쌀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투기 대상이었던 점, 또 전쟁을 수행하면서 심화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농업 생산량을 높여야 했는데, 여기서 현지 풍토에 맞는 목축이 제기된다. 만주국 기자였던 안수길이 이러한 농업 정책의 변화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²⁵⁾ 그렇기에 그는 도훈이라는 중립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통해 수전=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색채를 탈색시키는 한편 농민도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당시 만인(滿人)²⁷⁾에게 요구된 목축 기술을 집어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무렵 목축은 식량난의 대안으로 일본 당국에 의해 권장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좌담회를 참고해도 좋겠다.

청금(靑衿): 영농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원래로 건조지대(乾燥地帶)와 혼대(混帶)는 농사짓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올해는 좀 특별하지만 만주서는 이렇게 가꾸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꾸는데 대하여 저항력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개척민들의 거기에 대한 인식이 틀렸습니다. 만주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나선 반드시 진압(鎭壓)을 합니다. 그 뒤에 이장(梨丈)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또 쿤즈를 굴립니다. 그렇게만 하면 한달 가물어도 문제없습니다. 만주 사람들이 몇백년 두고 경험해온 그 방법을 개척민들도 좀더 인식해야 할 줄 압니다. 농업에 대한 연구심 적은 것이 개척민의 결점입니다. 안도현에 한해서 본다면 여기는 고산지대니까 기후가 불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농방법을 좀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법으로는 늘 이럴 것입니다. 그러니

25) 장혁주, 「개척지의 과제」, 민족문화연구소, 앞의 책, 65쪽.(원문은 『매일신보』 1942.6.24.~27.)

26) 기록을 보면 만주에서 목축의 필요성은 3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東拓은 滿洲牧畜 基礎를 調査中」, 『동아일보』 1932.9.17.; 「滿洲牧畜光景」, 『동아일보』 1934.8.15; 「만철 목축 경영, 북만주 평원에」, 『조선중앙일보』 1936.6.28. 참고.

27) 만인은 민족과 국민(시민)의 경계를 넘나는 모호한 개념이었지만 최소한 인민으로 제시된 개념이었고 민족의 성격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었다.

까 곡식보다도 우리는 목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일게 업다고들 하지요? 소나 돼지 먹일 것을 심읍시다. 그 래서 좀더 목축에 힘을 쓰면 그깃짓 빗쭈름 갇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나 강냉이 심어가지고는 빗 갇기어렵습니다. 목축을 주로 해야 합니 다.²⁸⁾

발언자는 만주 입식에 앞장섰던 만선척식주식회사의 대사하둔(屯) 출 장소장으로 당시 일제의 농업정책을 현지에서 지도하던 인물이다. 그는 명료하게 토착민의 전통적 농업 기술과 목축에 눈을 돌리자고 제안한다. 물론 수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기후 조건에 맞는 영농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전 위주 농업 정책에 대한 일본 당국의 고민을 반영하 고 있다. 그렇다면 <북향보>에서 북향도장의 채원 마련책으로 수전 못 지않게 양봉과 양돈, 약초재배가 강조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 니 정확도가 만든 농업에 상업 기술을 도입하고, “유축농업을 기초로 하 는 영농 방법을 전수”하여 모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도장설립 안은 이 러한 정책 변화를 수용하여 구상된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일본인 관료 사도미에 의해 거둬 조선인에게 ‘부족한 농업 기술’로 거론될 때, 만주 개척에 앞장섰던 진보한 농업 기술을 보유한 조선인들은 이제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워야하는 만주국의 ‘학생’이 된다.

사도미는 이번기좌가 되고 성(省)으로 전근되면서 성내의 목축장려와 그진흥조성에대한 일을 마터보게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농민만주 국이 그진면목을 나타내려면 목축을겸한농업즉 유축농업(有畜農業)이어 야된다는전체론으로 말을 일으키여, 간도지방의 실정에까지 내려왔는데 “대체로 간도지방은 일즉부터개척이되어空地(공지)는 개간할수잇는 곳은 거이개간되였다불수잇소. 그러나농촌의가축사육의현상을 살펴볼 때유축농업과는 거리가 아주먼 것이 어김업는 사실인데, 農牛(농우) 이외에는 이러타할가축이 업고보니, 농촌의 경제력도자연히저하될것

28) 정인택, 앞의 글, 57쪽.

이 아니겠소. 원인은물론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체로 선계농민들에게가축사육의사상이 막연한 것은 아닐까생각되는 것이요. 이런그들에게목축의사상을함양시키고적극적으로 지도하여 현재의자력에만맞기는농업을 육축농업으로改編(개편)하자는것이정부의 방침이요, 또 이것을담당한사람의포부요. 헌데…”(432쪽)

물론 그렇다고 하여 개척 농장의 조선인 학생들을 지도하는 스승의 자리가 중국인들에게 넘겨진 것은 아니다. 조선인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자는 찬구 같은 엘리트 동포 청년이거나 사심이 없는 일본인 관료 정도지, 수전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중국인은 될 수 없었다. 만주 농업의 스승 자리를 가까스로 획득한 조선인들을 학생으로 되돌리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만주의 전통적 농법을 재발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선땅도 아닌 만주에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논리를 때로는 이용하고 때로는 그것과 섞이면서 지켜낸 민족적 자부심에 관련된 사안이 었다. 이른바 오족협화론의 모순은 만주국의 농업 정책을 둘러싼 상황에서 서도 선했했다. 안수길의 작품에서 중국인 농민들의 자리가 무지한 타자를 넘어서기 어려웠던 이유도 이러한 멘탈리티에 있을 것이다.

V. 나오며

제국주의의 모든 정책은, 그것이 어떤 정책이든 피식민지인들에게 필연 식민 모국과 구분되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지적한 수전이나 목축 역시 마찬가지이다. 과학기술 없는 전시 체제를 상상할 수 없듯이, 일견 가치중립적인 농업 기술에도 제국과 식민지의 흔적은 어김없이 각인되어 있다. 우리는 그 기술을 둘러싼 담론 생산 방식과 작동 구조를 점검함으로써 특정 시대를 풍미한 기술을 역사적으로 온당하게, 공정하게 사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제 스스로

내부를 열어줄 리 없으니 문학 작품처럼 정교하게 언어화된 텍스트는 문제적 기술을 사유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된다.

이 글은 일제 치하 만주에서 수전의 의미를 물으면서 시작했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만 해도 간단치 않은데, 만주는 이 위에 또 중국과,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생겨난 만주의 조선인 디아스포라 집단은 이런 몇 겹의 모순 속에서 자력 ‘생존’해야 했다. 이 지상과제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 문제였기에 이방인의 땅에서 수난당한 이들을 향한 동정과 연민은 예나 지금이나 이들을 희생자로 감싸고 보듬으며 생존의 정당성을 언급해 왔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식민종주국에 있다. 그러나 탈식민주의 연구가 알려주었듯이 이러한 희생자 의식만으로는 부족하다. 피식민지 하층 계급을 수탈하는 자본이 제 민족이라고 봐주지 않는 마당에 만주와 같은 특수한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고 희생자가 침입자인 역설이 어찌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주국 성립 이후 조선인 디아스포라 집단의 위상 변화를 민족 외부자의 시선으로도 보아야 하는 까닭이 또한 여기에 있다.

만보산사건은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려주는 역사적 케이스다. 당시 조선인들이 중국 농민의 피해에 둔감했던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중국인 지주와 일제가 공모한 계약 때문에 중국인 소작농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반면 이 사건 이후 조선인의 수전 기술은 미개지 만주를 개조할 선진적 기술로 각광받는다. 특히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에 열광한 것은, 수전이 일제 말기 파시즘 체제에서 만주 개척에 대한 정당한 지분을 민족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인들은 수전에서 붉은 황무지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조선 출신의 농업 스승들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아우라는 일제의 만주 개척 정책이 대농장 위주로 집중되고 조선인 디아스포라 집단 내부에서도 자본 문제가 생기면서 서서히 변화한다.

이제 조선인들은 새로운 기술-목축을 배워야 하는 학생으로 지위가 바뀐다.

식민지 시기 연구에서 일본 제국주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의 최종 심급이다. 한국 근대 문학 연구 또한 이 부도덕한 침입자를 단죄하는 방식으로 민족 문학을 옹호해 왔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탈민족적인 자본의 친연성에 주목하는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북향보>는 이 복잡한 상황을 다분히 도덕적이고 민족적인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돌파하고 있지만 현실은 과연 어떠했을까? 이 논문은 그러한 궁금증이 낳은 문제제기인 셈이다.

참고문헌

1. 기초 자료

연변대학교조선문학연구소, 『안수길』, 보고사, 2005.

이태준, 「농군」, 『문장』 임시증간호, 1939.7.

2. 논문 및 단행본

공진항, 『이상향을 찾아서』, 탁암공진항 회수기념문집간행위원회, 1970.

김영, 『근대 만주 벼농사 발달과 이주 조선인』, 국학자료원, 2004.

김재용 편,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2010.

김철, 「몰락하는 신생-‘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민두기, 「만보산사건과 한국 언론의 대응-상이한 민족주의적 시각」, 『동양사학』 65, 1999.1.

민족문학연구소, 『일제 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2007.

박영석, 『만보산사건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8.

오카베 마키오,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최혜주 역, 어문학사, 2009, 237쪽.

와타나베 나오키(渡辺直紀),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과 ‘만주」, 『한국문학연구』 3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윤영옥, 「한국 근대 농민의 문학적 재현과 수리복합체」, 『한국언어문학』 69, 한국언어문학회, 2009.

인정식, 「조선농민과 문학적 표현」, 『삼천리』, 1939.7

장용경, 「일제 식민지기 인정식의 전향론-내선일체론을 통한 식민적 관계의 형성과 농업재편성론」, 『한국사론』 4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3.

차성연, 「만주 이주민 소설의 주권 지향성 연구」,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2007.

坂下明彦, 「滿州農業移民の營農實態と漢族・朝鮮族」, 『日本の科學者』 30, 1995.10.

<Abstract>

The Essay on an Ethnic Issue through
Agricultural Technologies in Manchuria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 around Novelist An Soo-Gil's literary works -

Kim, Ju-Hyun · Kwon, Hyuk-Gun

This paper has approached the problematic place called 'Manchuria'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an agricultural technology as a way of an ethnic issue - that is, specifically aiming at a paddy field(水田) where the diaspora group of Joseon Dynasty had succeeded at that time. Manchuria is a very critical space in discussion of Anti-colonialism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 concerns of intellectuals about Manchuria in early modern times sharply increased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and simultaneously to modern writers, it was a hybrid space that it was possible to realize the ethnic utopia frustrated in reality and to make the imperial dementia - 'the Great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As a result, it is difficult for modern writers who have dealt with Manchuria in the latest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to be free from a dichotomy between resistance and cooperation.

However, 'The Uprising on Manbo Mountain' which becomes the source of modern writers to configurate Manchuria gives a new vision about this problem. So far 'the Uprising on Manbo Mountain' has been called a synonym for 'ethnic sufferings' of Korean (Joseon)

diaspora group and ‘the overcoming’. Considering Chinese tenant farmers who had the most severely harmed because of the conspiracy between Chinese landowners and Japanese, but, nowadays the significant things in the incident are a capital and hierarchical problem rather than a nation. It is the reason why we should examine the texts of modern writers who have used this incident as the writing material in the point of post-nationalism view.

A paddy field in Manchuria was the index of ‘Korean-ness (Joseon-ness)’, but it gradually became a capital-friendly technology as time goes by. The eyes of ethnic insiders about it can be founded in An Soo-Gil’s works which had differently recognized modern farming system by times in accordance with the agricultural policy of Manchoukou (Manchu State) – the Japanese puppet state. <Byeo;a rice plant>, <Mokchookgi;a stock farming record> and <Bukhyangbo;a genealogy of Northern Home> show the process that the position of Korean (Joseon) farmers had been changed from ‘the master’ of Manchu agriculture to ‘the student’ with the eyes of insider by making them in the work. ‘Concordant Theory’ is remarkably shown in the narrative attitude of the writer about the position of Korean farmers because the focus of Manchu agriculture was changed from ‘a paddy field’ to ‘stock farming’. Accordingly, it is meaningful to reveal the ethnics issue in Manchuria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relation between an empire and a capital by expanding the methodology of narrative study about the history of Manchu reclamation which is still in conflict with a dichotomy.

Key Words : a paddy field, The Uprising on Manbo Mountain, An

Soo-Gil, <Byeo>, <Mokchookgi>, <Bukhyangbo>,
Post Colonialism, Nationalism, Five race Concordant
Theory.

■ 논문접수 : 2011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1년 8월 5일

■ 게재확정 : 2011년 8월 10일